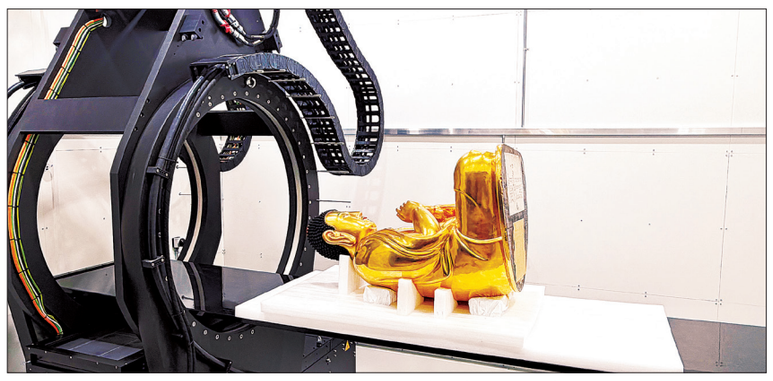
해체 없이 문화유산 내부 살핀다

국립중앙博 보존과학센터
세계 최대 원통 CT 도입
문화유산 비파괴조사 위한
최적 통합 조사체계 완성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에 도입한 세계 최대 원통형 CT로 대형 불상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의 해체 없이 내부를 살필 수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CT가 국내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 불상이나 고대 장신구 등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대형 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 등을 비파괴적으로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원통형 CT(Gantry Computed Tomography)를 관내 보존과학센터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통형 CT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촬영 범위의 제약과 문화유산의 손상 정도 등에 따라 기존 CT 장비로는 촬영이 어려웠던 문화유산도 고해상도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소형의 고대 장신구에서부터 대형의 목조불상 등에까지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CT 조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이다.

7월 14일 새롭게 공개된 원통형 CT는 450㎸의 높은 투과력과 다양한 출력용량(700W/1,500W)을 바탕으로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 600㎸ CT가 조사 대상품을 고정한 상태로 회전시키며 X-ray 발생장치가 상·하로 이동하여 촬영하는 것과 달리, 원통형 CT는 대상품을 검사대에 올려둔 상태에서 X-ray 발생장치가 약 220° 회전해 수평으로 이동하며 촬영하는 방식(gantry)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장비로는 조사가 어려웠던 대형 문화유산(최대 수용조건 직경 1100㎜, 길이 3000㎜)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유산의 내·외부 구조와 제작기법, 손상 상태 등을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7년부터 우리 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제작기법을 조사하기 위해 CT 장비를 도입해 왔다. 이번 원통형 CT의 도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의 나노 CT, 600㎸ CT와 함께 소형의 고대 장신구에서부터 대형의 목조불상,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의 발굴 수집품에 이르기까지 대상품의 크기와 손상 정도의 한계를 극복한 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문화유산 비파괴 조사를 위한 최적의 통합 조사 체계를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의 나이테를 비파괴로 조사해 목재의 연륜연대 측정을 위한 조사 방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원통형 CT의 도입을 기점으로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넘어 고고학·미술사·목재 해부학·연륜연대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축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문화유산의 제작기법과 재료 특성, 내부 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과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 연구와 미래 활용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중앙博, 청년 불교유산 교육 성료

7월 7일 월정사성보博 일원서
'불교유산 청년과 만나다' 주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은 7월 7일 월정사성보박물관 및 사찰 경내에서 일반 대중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불교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를 진행했다.

청년과 일반대중 5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해 온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의 외연을 넓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불교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청년세대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월정사 견학과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예사와의 만남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서은호 월정사성보박물관 운영팀장의 안내로 국보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 등 주요 성보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월정사의 문화유산적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홍순욱 학예실장의 '박물관 운영과 학예 인력'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성보박물관의 역할과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성보의 가치를 소개하고, 문화유산 보존·연구 현장의 실무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청년 참여자들에게 박물관 학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지난해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 주관 우수성보박물관상을 수상한 기관으로 자체 전시는 물론 국립박물관과 연계 전시 등 활발한 전시·연구·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7월 7일 월정사성보박물관 및 사찰 경내에서 '불교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를 진행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㊾ 전도몽상(顚倒夢想)

두 눈을 뜬 채 꿈을 꾸고 있는가

顚 倒 夢 想

대승불교의 정수인 〈반야심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본래 비어 있다는 공(空)의 선언으로 시작한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연을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연기(緣起)의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으니 애초에 움켜쥘 것도 없다. 이 무소득(無所得)의 실상을 통찰하는 순간,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집착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잃을 것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이 사라지고, 걸림이 없으니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 또한 사라진다. 〈반야심경〉은 이처럼 연기에서 공으로, 무소득에서 무유공포(無有恐怖)로 이어지는 치밀한 논리를 통해 인간을 고통에서 건져 올린다.

중생이 끊임없이 괴로운 까닭은 이 자명한 실상을 거꾸로 보기 때문이다. 경전은 이를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 부른다. 초기 경전 〈앙굿따라 니까야〉는 인간이 빠지는 네 가지 근원적인 착각을 '사전도(四顚倒)'로 설명한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도 영원할 것이라 믿고[常顚倒], 결국 괴로움으로 귀결될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며[樂顚倒], 고정된 자아가 없음에도 '나'와 '내 것'을 고집하고[我顚倒], 덧없는 육신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淨顚倒]이다.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무명(無明)과 전도된 인식이 모든 고통의 씨앗이다.

당나라 때 편찬된 역사서 〈진서(晉書)〉 '약광전'에 전하는 '배중사영(杯中蛇影)'의 고사는 이러한 전도된 인식의 본질을 절묘하게 보여준다. 한 사내가 술잔에 비친 벽의 활 그림자를 진짜 뱀으로 착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병을 얻는다. 그러나 그를 괴롭힌 뱀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뒤바뀐 인식이 빚어낸 허상일 뿐이다. 사내가 뒤를 돌아 벽에 걸린 활을 확인하는 순간 착각은 사라졌고 병도 씻은 듯이 나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불안과 고통 또한 이 뱀 그림자와 다르지 않다. 내 뜻대로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이 빚어낸 허상일 뿐이다.

결국 중생은 두 눈을 뜬 채 꿈을 꾸는 존재다. 스스로 만든 허상을 현실이라 믿으며 꿈 속에서 땀 흘리고 비명을 지른다. 그 꿈을 꿈인 줄 아는 순간, 비로소 깨어남이 시작된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헛된 가치관과 뒤바뀐 견해를 멀리 여의면[遠離顚倒夢想], 우주 본래의 고요와 청정, 평온과 기쁨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이 곧 궁극의 열반[究竟涅槃]이다.

움켜쥘 것이 없음을 알면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 전도몽상을 놓고 실상을 마주한 이는 소유에 매이지 않고 존재 그 자체를 살아가는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화순 불암사 주지〉

BTN '절로갈까', 9월 가평 대원사서

9월 12~13일, 릴레이 토크 등 프로그램 진행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3040 청년 세대를 위한 인연 만들기 프로젝트,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를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 대원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로갈까'는 사찰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도심을 벗어난 공간에서 일상과는 다른 속도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9월의 '절로갈까'는 연인산 자락에 자리한 가평 대원사에서 열리며 커플레크리에이션, 연애심리테스트, 릴레이토크 등 참가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BTN붓다회 관계자는 "연인산과 쌍미륵을 품은 대원사는 이름과 상징만으로도 특별한 인연의 분위기를 전하는 곳"이라며 "이번 '절로갈까'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청춘들에게 오래 기억될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TN 붓다회가 주최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미혼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및 문의는 BTN붓다회 콜센터(1855-0108) 또는 인스타그램 '절로멍냥' 프로필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즌 추천도서

묘선, 관음이 되다

경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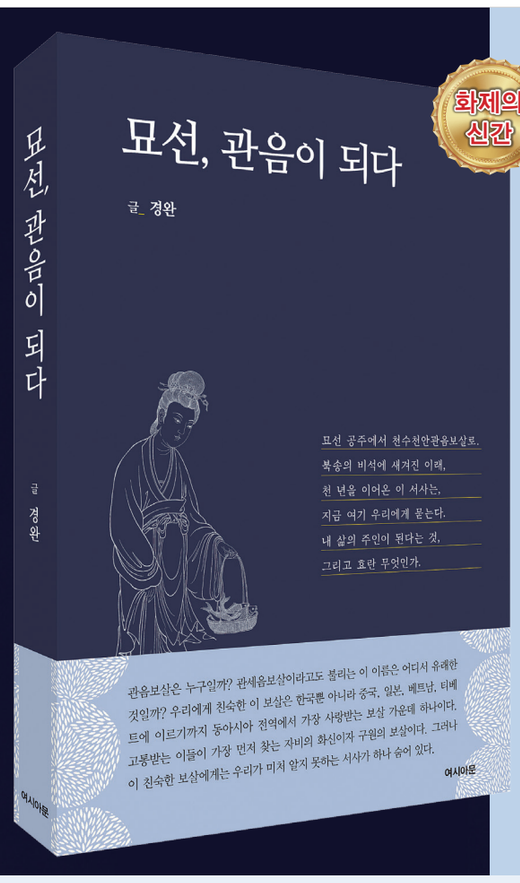
천 년이 서사,관음이 된 한 공주의 이야기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혼인을 거부하고 수행의 길을 택한 묘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버지를 위해
눈과 손을 내어준 극한의 자비.
그녀는 마침내 천수천안(千手千眼)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 여성화의 기원을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입니다.





왜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이 되었을까?

동아시아 관음신앙의 뿌리를 추적한
국내 최초 '묘선 공주' 본격 연구서

- ✓ 「향산대비보살전」 비문 국내 최초 완역 수록
- ✓ 묘선 서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한국어 단행본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정묵 스님 추천
-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추천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관음보살상 뒤에는
천 년 전 중국 항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
_ 정묵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묘선 서사의 깊은 울림을 오늘의 독자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연구 성과다"
_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이 책의 다섯 가지 포인트

❶ 관음보살 여성화의 서사적 변용을 추적하다
❷ 묘선 서사를 빚어낸 세 갈래 뿌리를 풀다
❸ 여성, 구원의 대상에서 수행의 주체로
❹ 효(孝)와 출가, 두 가치의 화쟁(和諍)을 읽다
❺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하다

책 정보
저 자 경완 스님
규 격 변형국판(148*210)
발행일 2026년 5월 15일
페이지 296쪽 | 값 18,000원 | 출판사 여시아문
ISBN: 978-89-87067-53-7 (03220)

구입 문의 여시아문 ☎ 02-732-1520 www.mahamall.co.kr

관음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